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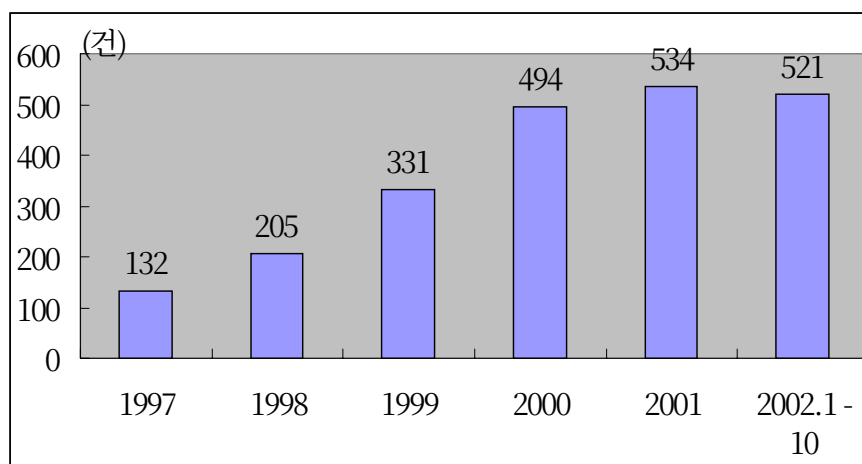
상표 출원에도 다이어트 “열풍”

체중조절 관련 <바이오 다이어트> · <슬림패스트> 출원 증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날씬한 몸매와 건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 상품이나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이 분석한 다이어트 관련 상표출원을 보면, 1990년 초까지는 100건 미만으로 출원됐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간 100건을 돌파해 1997년에는 132건, 1999년 331건으로 늘어났고 2000년대에 들어서 2001년 534건, 2002년 10월 말 현재 521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다이어트 관련상표 출원추이



다이어트 관련 상표는 <다이어트(DIET)>나 <슬림(SLIM)>이 결합된 상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바이오 다이어트>나 <다이어트플러스>, <바이오슬림>, <울트라슬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허브녹차>나 <키토산>, <살빼기 교실> 등의 지정상품의 원료를 나타내는 상표도 출원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단순히 체중감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음료 같은 상품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건강함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체중조절 지도센터나 운동시설기관, 화장품류의 상품출원 등 체중조절 관련 서비스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에 따라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날씬한 체형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한 다이어트 관련 상표출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Journal 2003/04/08>